

기업하기 좋은 남원 만든다 ‘임실N치즈축제’ 홍보 총력전

시, 기회발전특구·투자선도지구 연계 쌍끌이 전략 본격화

남원시가 지난 7월 라이프케어(제약 및 의료기기, 뉴티화장품,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중심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투자선도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투자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쌍끌이 전략'을 펼친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파격적인 세계 해택과 규제 특례에 더해, 기업 맞춤형 기반 시설까지 완비함으로써 투자 매력도를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남원시는 기회발전특구와 투자선도지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인제적 전략을 통해, 유망 기업 유치는 물론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까지 이뤄내며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도시로의 합한 도약을 준비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남원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역대급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는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강력한 유인책이다. 또한, KTX남원 역세권 일원에 지정된 투자선도지구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할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 구축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예정이며, 투자선도지구의 강점인 건축물·용역을 완화, 신속한 인허가 처리(의제)



투자선도지구 조감도

등을 활용에 복합환승센터, 지역특화 산업 PLAZA 및 도심물류센터, 공동주택 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는 지역간 투자 유치 경쟁에서 남원시만의 차별화된 우위를 확보하게 해줄 전망이다.

남원시의 '쌍끌이 전략'은 단순히 산업 인프라 구축에만 머무르지 않아, 투자선도지구 개발 계획에는 이전 기업 입지원과 그 가족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단지, 문화·상업시설, 복지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을 떠나 남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인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강력

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근로자에게는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할 예정이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기회발전특구가 기업 유치를 위한 강력한 '엔진'이라면, 투자선도지구는 기업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잘 닦인 '활주로'와 같다"며, "세금 문제부터 부지, 공장 설립, 그리고 직원들의 주거 문제까지 전체를 책임지는 '올인원(All-in-one)' 투자 패키지'를 제공, 남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양지천, 사계절 꽃길 품은 관광 명소 발돋움

순창군이 지난 5월 양지천 산책로 일원에 식재한 환화코스모스와 벚꽃마련초가 화사하게 물들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오는 9월 초에는 만개해 절정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전망이다.

이는 민선 8기 5대 핵심사업인 '경천과 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군은 경천과 양지천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육성해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다. 봄에는 벚꽃과 어우러진 꽃잔디·수선화·튤립,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환

화코스모스·벚꽃마련초, 겨울에는 다양한 경관시설이 어우러져 사계절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양지천 수변개발과 꽃길 조성 등을 완료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경천 수변개발 및 꽃길 조성, 양지천·경천 합류부 공원화, 야간 음악분수대 설치 등 다양한 경관과 휴게 시설을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 경천 수변개발까지 완료되면 경천과 양지천은 명품 생태하천으로 자리매김하며, 순창군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파크골프장,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 인증 준비 박차

임실군파크골프장(오수면 소재)이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사)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을 받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군은 현재 각 코스별 벙커 조성, 코스 길이 규격 점검, 나무 및 볼 보호장

설치, 편의시설 정비 등 인증 기준에 맞게 시설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대한파크골프협회 현장심사단은 오는 22일 오수파크골프장의 경기시설(코스 규격, 홀컵, OB 말뚝, 티그라운드, 벙커, 페어웨이 상태), 편의시설(화장실, 휴게실, 어어프래저, 안내



게시판, 주차 공간 확보), 운영 체계(응급구조 체계, 안전 장비 비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N치즈축제’ 홍보 총력전

‘임실 방문의 해’ 맞아 매체 활용·찾아가는 현장 홍보 진행

2025 임실 방문의 해에 열리는 특별한 치즈축제를 앞두고, 임실군이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인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군은 홍보담당관을 중심으로 관광치즈와 치즈축제 담당 부서가 협업 체계를 이뤄 찾아가는 현장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5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개최하는 2025 임실N치즈축제를 50여 일 앞두고, 다양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임실N치즈축제 홍보를 위해 SNS·TV·라디오·지면 광고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은 물론, 관광객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진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홍보 담당 부서와 축제 부서가 함께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전주열터미유허페스티벌(JUMF) 행사 현장을 찾아 홍보에 나섰다.

특히, JUMF 현장을 찾은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임실N치즈 이벤트와 함께 다양한 기념품과 축제 리플릿을 배포했다.

또한,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임실N치즈축제와 2025 임실 방문의 해, 임실 고향사랑기부제 영상을 주기적으로 노출하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임실=진홍영 기자

“민간개발 손배소송 항소심 판결 유감”

남원시, 시민·시의회와 협력해 해결책 모색

남원시는 최근 법원이 선고한 민간개발 손배배상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소송으로 시에 발생할 재정적 부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송에서 시민의 재산과 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기대와 달랐다 고 19일 밝혔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18일 이와 관련해 행정의 이방을 물은 바 있으며, 남원시는 결코 이 사업의 실패를 바라거나 시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낭비하려 한 적이 없고, 다만 민간개발사업 관련 실시협약 조건이 시에 일반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형세 낭비와 우리 시의 소중한 공공재산 침해에 노력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시 측은 판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 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남은 법적 절차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

구하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민들의 권익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고 시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로,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법적 검토와 내부 논의를 통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를 한층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파드리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욱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나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청년자립도전 참여자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 합격

남원시가 지원하는 남원지역자활센터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1명이 2025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사업단에서 공무원 시험 합격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23년에 1명이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며, 2024년에도 1명이 지방공무원에 합격하여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운영의 결실을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 경험이나 직업경험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청년층의 욕구나 특성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고 취업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참여자 A씨는 “임용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준 남원시와 남원지역자활센터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임춘근 자활센터장은 “많은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순창군은 19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북한 특수부대의 청소년수련관 공격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군·경·소방·보건의료원·한국전력공사·KT·자율방재단 등 150명이 참여했다. 훈련에는 장갑차, 구급차, 소방차, 드론 등 총 22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훈련은 △적 특수부대의 공격과 청소년센터 진입 △군·경의 합동 소탕 작전 △경철의 현장통제 △부상자 후송과 응급처치 △화재 진압 및 단전 복구 △통신시설 복구 △방역 활동 △현장 상황 홍보 방송 순으로 단계별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서는 인명피해 6명(중상 2명, 경상 4명), 전기·통신 두절 및 화재로 인한 시설 일부 소실 상황을 가정해 실제와 같은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